“대행 선사 계행, ‘자비’ 중심한 이타행”

대행선硏, 21일 ‘대행 선사 계행 · 교화행’ 계절발표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 주인공 관법’ 으로 중생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계행(戒行)은 “자비심을 기반한 이타행이라는 특징을 가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마음선원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은 9월 21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열린 제4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불살생계의 실천 의- 대행의 계행과 관련’ 연구 논문을 통해 대행 선사가 보여준 계행을 〈한마음요전〉을 중심으로 분석 · 조명했다.

먼저, 이자랑 교수는 ‘불살생 · 불투도 · 불사음 · 불망어 · 불음주’ 로 대표되는 오계는 ‘금지’ 가 아닌 ‘자발적인 윤리 규범’ 에 가깝다고 전제했다.

그에 따르면 빠알리 경전의 오계는 ‘생물을 죽이는 행위를 떠나는 학처를 수지하겠습니다’ 등과 같이 ‘악행으로부터 멀어지겠다’ 는 의미가 있다. “계(戒)란 윤리나 도덕에 가까운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오계 중 제1조인 ‘불살생계’ 의 경우 “생명존중을 기반으로 한 계”라고 설명한 이자랑 교수는 “ ‘다른 생류(生類)에 대한 자비심의 배양’ 이 불살생계에 대한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서 “자비심은 일체 생류에 대해 해를 끼치지 않고 보호해 주는 마음으로서 불살생의 실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고 밝혔다.

〈한마음요전〉 등을 중심으로 대행 선사의 행적을 살핀 이자랑 교수는 “선사가 홀로 산과 들을 다니며 수행한 경험들이 수행자로 필요한 심신의 기반을 갖추는 계기가 됐고, 이를 계율과 다름없다고 생각했다”고 분석하며 “이 중심에는 ‘생류에 대한 자비심’ 이 있다. 선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관심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류의 행복이었고, 자비심은 이를 실현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계율의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도 대행 선사의 계행의 특징으로 이자랑 교수는 꼽았다. 실제 대행 선사는 법문에서 ‘계율’ 을 언급하는 등 계율의 실천에 대해 관심이 적지 않지만, 특정 조문을 강조하거나 얽매이지 않았다.



이자랑 교수



황상준 교수

이자랑 교수, 선사 계행 조명해
戒, 악행 멀리하는 자발적 약속
생명존중 사상 기반한 불살생계
자비심, 대행 계행 주요한 특징
얽매임보다 “한마음 행하라” 강조

이에 이자랑 교수는 “대행 선사는 생활 속에서 자신이 터득한 것을 계율로 생각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계행의 의미를 찾는다”고 분석하며 “자신을 계율이라는 틀 안에 가두기보다 내면에 잠재하는 계율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도록 할 것을 선사는 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행의 실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대행 선사는 ‘마음’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마음요전〉에서 대행 선사는 “250계다 348계다 할 것이 없이 전체가 계율이니 한마음으로 지키고 행해야 한다”고 설한다.

이자랑 교수는 “대행 선사는 계율 조문 하나하나에 얽매이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으며 오로지 행동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요소로 마음, 특히 ‘주인공’ 이라 부르는 자신의 내면을 중시한다”면서 “계율의 실천에 있어 우리의 행위나 말들이 마음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볼 때 충분히 납득할만 한 견해”라고 밝혔다.

‘프레임 바꾸기’ 대행선사 교화 핵심

황상준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는 ‘대행 선사의 생애와 교화행’ 을 통해 생애 기록 비교와 출 · 재가 교화법문을 분석했다.

황상준 교수는 〈한마음요전〉과 대행 선사 추모집 〈만공에 핀 꽃은 청산을 울리고〉, BTN불교TV 추모 다큐멘터리 〈한마음의 길〉에 나타난 대행 선사의 행장을 비교했다. 특히 일원상 전법시대의 대행 선사 법문은 초기 가르침을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 만큼 선사의 초기 교화를 접한 신도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구술자료를 수집해 연구를 진행할 것을 한마음선원에 제안했다.

또한 행장과 법문의 비교를 통해 승가와 재가에 대한 대행 선사의 교화행을 분석했다. 황상준 교수에 따르면 대행 선사는 승가(제자)에 대해 ‘화합’ 과 ‘자비보살행의 실천’ 을 주로 법문했다. 재가에 대한 대행 선사의 법문은 ‘프레임 바꾸기’ 에 중점을 두고 있다.

황상준 교수는 “대행 선사의 ‘되돌려 긍정하라’ 의 관점은 ‘생각의 전환’ 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꾸어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이며, 자신의 진정한 체험 속에서 행해진 생활법문을 통해 전도에 사로잡힌 신도들을 일깨우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발표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은 발표되는 연구논문들이 대행 선사의 수행과 사상을 널리 전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원했다.

혜솔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발표되는 전문학자들의 논문들이 대행 선사의 선풍이 더 많은 생명들에게 오래도록 전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자양분이 됐으면 한다”면서 “오늘의 인연이 가을 단풍처럼이 익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일 원장에 취임한 권탄준 대행선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불사는 원력과 정성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 믿고 정성을 기울여 직분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선원 스님과 신도들의 후원과 격려 바란다”고 밝혔다.

美박물관 소장 ‘고려불화’ 웹서 만난다

문화재청 ‘고려불화 웹’ 구축
프리어 · 새클러博 등 8곳 소장
고려불화 16점 상세 정보 확인

미국 박물관의 소장된 고려불화 16점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구축 · 운영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미국 프리어 · 새클러미술관(관장 체이스 로빈슨)은 미국 박물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불화의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고려불화 웹사이트 ‘고려불화 자세히 보기(Goryeo Buddhist Painting: A Closer Look)’ 를 구축하고 양 기관 홈페이지에서 지난 9월 21일 동시 공개했다.

프리어 · 새클러미술관은 보스턴미술관 · 부르클린미술관 등 미국 8개 박물관에 소장된 고려불화 16점을 문화재청 예산을 받아 정밀 조사와 고해상도 이미지 촬영, 전문가 도판해설과 심포지엄 등을 거쳐 2013년부터 총 7년간의 노력 끝에 최근 고려불화 종합정보 웹사이트 제작을 완료했다.



클리어 · 새클러박물관에 소장된 고려불화.

웹사이트는 작품 · 인물 · 논고 · 참고자료 · 참고문헌 · 문양사전 등 6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작품’ 에서는 고해상도 이미지의 고려불화 16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논고’ 에서는 박지선 교수(용인대), 정은우 교수(동아대), 키슨 윌슨 학예사(프리어 · 새클러 미술관) 등 전문학자들의 해설논문을 만날 수 있다. ‘문양사전’ 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의 불화와 구별되는 고려불화만의 고유한 문양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이번 고려불화 웹사이트 구축에는 정우택 동국대 前 교수(동국대)와 키스 윌슨 학예사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이들은 7년 가량의 긴 시간 동안 고해상도 사진 촬영, 도판 해설 · 번역, 소장경위 조사, 웹사이트 수정 · 보완 등의 작업을 직접 수행했다.

정우택 前 교수는 “세계적으로도 인지도가 높은 미국 국립박물관이 고려불화를 위한 별도 웹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점은 획기적인 사건”이라면서 “국내 행정기관이 외국박물관 지원 사업을 통해 거둔 최고의 성과임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고려불화 웹사이트는 국외소재문화재 중에서 특정 주제의 문화재 정보를 한 곳에 통합해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다. 누구나 고려불화의 예술적 · 문화재적 가치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사 단계부터 활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체이스 로빈슨 프리어 · 새클러미술관장은 “고려불화 웹사이트는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문화재청과 박물관이 제공하는 디지털 웹사이트는 한국의 진귀한 예술작품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화재청은 “고려불화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 프리어 · 새클러미술관과 제작기법, 재료 등에 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범어사 황실축원 장엄수 ‘불번형 위패’”

이경희 연구원, 범어사 박물관 학술대회서 주장

효명세자 부부 명복위해 제작
왕실자수 · 기법 확인되는 유물

범어사 황실축원 장엄수가 ‘불번형 위패(佛幡形 位牌)’ 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범어사 황실축원 장엄수는 ‘문조익황제와 신정 익황후의 명복을 비는 내용이 담긴 궁중자수’ 로 왕실자수의 형태 및 기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유물로 알려져 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경선)은 9월 27일 범어사 선문화교육센터에서 ‘부산광역시 민속문화재 제1호 범어사 황실축원 장엄수 보존처리 학술세미나’ 를 개최했다.

학술세미나에서 이경희 한국전통복식연구소 전임연구원은 “범어사 황실축원 장엄수는 사후에 추승 된 왕인 조선 제23대 왕 순조의 맏아들 효명세자와 효명세자 세자빈인 신정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제작된 유물”이라고 설명하며 “장엄수의 형태는 불보살의 위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불번(佛幡)과 형태가 유사해 불교사적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황실축원 장엄수는 불번형 위패로 20세기 초 조선 왕실의 만장 형식이 포함된 자수이자 왕실의 정치사를 반영하는 유물인 점에서 가치가 크다”며 “조선 왕실의 자수 기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유물”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인 한국전통복식연구소 전임연구원은 발표에서 “ ‘범어사 황실축원 장엄수는 불교 번의 형태적 구성과 매우 유사하다”며 “크기 면에서 번과 비교했을 때 조금 작으나 유소(매듭을 맺고 끝에 술을 드리운 장식)의 색과 구성이나 매듭 엮음의 구조는 매우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백영미 한국전통복식연구소 전임연구원은 범어사 황실축원 장엄수의 재질분석과 보존처리 및 복제 과정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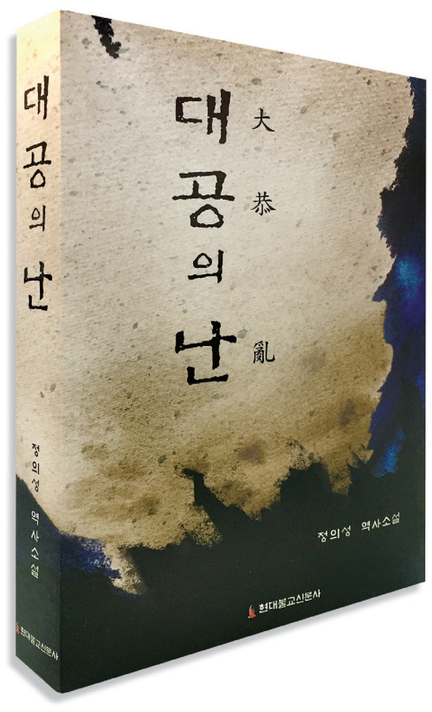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